

日本電氣協會 通常總會 參觀記

電力史編纂 자료수집도 ...

이 병 선

대한전기협회 홍보실장

나리타(成田)공항은 초행이다. 나는 二十數年前 일본에 잠시 머문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네다(羽田)공항을 이용했었다. 규모면에선 월등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東洋의인 인상 때문인지 그리 낯설지는 않아 보인다.

이번 日本訪問은 6월 2일에 열리는 日本電氣協會의 第78回 通常總會에 본협회 張東洙 常勤副會長이 초청을 받아 참석하는 것으로서 내가 부회장을 隨行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또 다른 목적은 현재 弘報室에서 遂行하고 있는 韓國電力事業發達史 편찬을 위한 關聯史料의 수집이다.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3일까지는 隨行業務이고 6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史料蒐集業務인 셈이다. 두 가지 중책을 가지고 트랩을 내리니 그리 편안한 여정일 것 같지는 않아 발걸음에 무게가 실린다.

일본도 출입국 수속이 꽤나 복잡했다. 입국수속에 이어 짐검사대 통과, 세관검사 등을 거쳐 나오니 도착예정시간 13:05분보다 약 40분 정도 늦어졌다.

일본전기협회에서 기무라(木村)課長과 한국인 가이드 洪玉花양이 마중을 나와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 시간부터는 일본전기협회의 타임스케줄에 따라 案内를 받게 된다. 이 사람들의 거의 완벽하리만큼 치밀하게 짜

여진 접대를 받다보니 그 섬세함이 놀랍기도 하려니와 어느 면에선 부자유스럽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숙소인 OKURA 호텔로 가는 도중 약 1시간 반 정도의 여유시간이 있어 成田山の 新勝寺에 안내되었다. 新勝寺는 주택가와 商街가 어우러져 있는 지역 주변의 큰 공원 안에 있는 절이다. 대웅전적인 본관은 그 규모가 대단한데 불상 앞에는 가로 1.5m 세로 약 4~5m 정도의 긴 철제로 된 시주함이 있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는 멀리서 동전을 던져 施主를 하기 때문이란단다. 일본에는 절에 대부분 이런 시주함이 있다는데 국경일이나 불교행사 등이 있을 때에는 日本列島の 동전이 모두 절로 모일 것 같아 언뜻 잔돈유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공원은 조경이 잘 되어 있고 우람한 나무들이 인상적이었다. 역시 비가 많은 나라라서 나무와 숲이 충분히 성장하는 것 같다.

예정된 시간에 OKURA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객실 857실, 주차공간 800대분의 대형호텔이다. 호텔 맞은편에는 美國大使館이 있고 주위환경은 조용한 편이다.

저녁에는 본관 5층에 있는 “山里”라는 일본전통음식

점에서 新任會長으로 예정된 가와이 다쓰오(川合辰雄) 現副會長이 초대하는 만찬에 참석했다. 일본측에서 가와이 副會長을 비롯하여 야마다(山田)常務, 요시다(吉田)常務, 하시모도(橋本)秘書, 기무라(木村)課長이 그리고 한국측에서는 張副會長과 내가 주빈으로 그들 맞은편에 앉고 洪通譯이 부회장옆에 배석했다. 가와이 副會長은 연세가 84세나 되는데도 건강이 아주 좋아 보였다. 酒量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했다. 몇몇 친구들끼리 소주모임도 가끔씩 갖는다고 한다. 전통음식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역시 생선회가 일품이었다. 부회장의 풍부한 話題로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이어갔으며 약 2시간 동안 友誼를 다져 나갔다.

通常總會는 6월 2일 오후 1시 30분에 개최되었다. 회장인사에 이어 議事進行에 따라 전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와 잉여금처분 등을 처리하고 이어서 제3호 의안으로 役員改選을 했다. 副會長님은 신·구 역원 人事直前に 通商産業省 政務次官과 함께 입장하도록 되어 있었다.

OKURA 호텔 별관 총회장 正門에는 대형 太極旗와 日章旗가 나란히 게양되어 있고 현관에 들어서니 역시



▲ 日本電氣協會의 초청만찬에서 張副會長任(기운데), 村田總務部長, 木村課長과 함께

태극기가 우리를 맞아주었다. 副會長님과 나는 마치 일국의 외교사절처럼 태극기 앞을 지나 VIP室로 안내되었다. 일개 단체의 행사인데도 여러 면에서 日本電氣協會의 配慮를 느끼게 한다.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간에 국가간의 교류에는 상호 位相提高와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일본전기협회와는 1974년도에 양국의 전기협회가 전기사업발전에 寄與하고자 정보자료의 교환 및 상호 협력을 위한 合意覺書를 교환한 이래 긴밀한 유대와 정보의 교류 등 지금까지 돈독한 友誼를 지속해 오고 있다. 오늘 이 총회에 참석하는 것도 민간사절로서의 교류협력 및 국위선양과 함께 양국 전기협회의 친선도모는 물론 양국의 우호증진에도 그 意義가 크다고 생각한다.

잠시후 參議院議員이기도 한 通産省 保坂三藏 政務次官이 우리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張副會長님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다음 양국 에너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문제, 경기침체에 대한 공동관심사, 또 실업문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이윽고 役員改選이 끝나 張부회장님과 호사카(保坂) 차관이 단상으로 入場하자 新·舊 役員의 인사가 시작되었다. 단상은 演壇을 중심으로 우측에 호사카 次官, 張부회장님에 이어 고문 두 분이 함께 자리했고, 연대 좌측으로는 新·舊회장과 부회장, 감사 등 7명이 앉아 있다.

먼저 호사카(保坂)政務次官이 通商産業大臣의 축사를 代讀하고 이어서 張副會長께서 축사에 들어갔다. 부회장께서는 21世紀의 目前에서 지난 한세기의 電力史를 훌륭히 마무리하는 時點에 개최되는 貴協會의 通常總會를 진심으로 祝賀하며, 아울러 電力市場 自由化에 따른 경쟁시대를 맞아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는 말씀을 전했고 일천여 명의 전기계 인사들이 큰 박수로 응답해 주

었다.

부회장님은 또 우리 나라는 지난해 IMF 체제로 國家經濟가 어려운 가운데 전력산업 분야에서도 개혁과 함께 構造改編이 추진되어 전력산업의 분할로 조직을 정비하고 經營을 革新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貴國의 앞선 經驗과 유익한 助言을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韓·日 두 나라의 電氣協會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더욱 돈독한 파트너십 아래 21世紀를 향한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서로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며 祝辭를 마무리했다.

祝辭는 한국인 교포 洪玉花양의 통역으로 한구절씩 번갈아 가며 했으며, 부회장님은 중후한 톤으로, 洪양은 세련된 음성으로 축하분위기를 고조시켜 여러 번 박수를 받기도 했다.

• 總會는 電氣人들의 祝祭日

오후 5시부터는 總會祝賀리셉션이 있었다. 지하 2층 연회장에 들어서자 기모노차림의 美貌의 女性들이 양쪽으로 도열하여 그들 特有의 자태로 내빈들을 맞이했다. 會場의 분위기는 本會議 때와는 사뭇 달랐다. 전국의 전기인 元老들의 祝祭日로서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동료, 친구, 선후배들 간의 만남의 장으로 사뭇 흥분된 분위기가 演出되는 듯했다. 副會長께서는 新·舊 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특히 신임 가와이(川合)會長께는 축하의 말씀을 거듭했다. 그밖에도 여러 任員들을 만나 간단한 담소로서 兩國 電氣協會의 돈독한 友誼를 다짐했다.

이곳의 行事는 일정에 따라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히 수행하는 치밀한 계획아래 진행되고 있음이 느껴졌으며 전기인들 전체가 行事參與意識이 강해 지방에서도 모든 經費를 自費로 부담하면서까지 참석하여 축하해 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되는 날이 오기를 마음으로 기대해 보았다.

6월 3일은 日本電氣協會를 公式訪問했다.

10시에 호텔을 출발하여 有樂町에 있는 電氣協會에 도착하자 가와이(川合)會長 이하 임원들이 副會長님과 나를 극진히 환대해 주었다. 이 자리에서 부회장께서는 어제의 通常總會가 성황리에 끝났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초대해 주신 厚意와 滯日期間 동안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가와이(川合)會長은 초대에 응해주신데 대한 감사인사에 이어 약 30분간 환담을 한 뒤 전기협회를 나섬으로써 총회참석의 公式的인 日程은 모두 마치게 되었다.

오후 일정은 觀光으로 이어졌다. 기무라(木村)課長이 7인승 벤츠를 가지고 와 먼저 에도동경박물관(江戸東京博物館)으로 향했다. 이 박물관은 東京都가 東京의 歷史와 文化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도시와 생활을 생각하고자 하는 뜻으로 1993년 3월에 개관한 常設展示館으로서 에도(江戸)時代의 각종 자료를 복원하여 최신 시스템으로 전시하고 있다고 한다. 약 3만평방미터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7층의 高床式 건물형태로서 동경도의 운동장부분 크기의 2.4배나 된다고 하며 정부차원의 전시관이 아니라 東京都 自體에서 관리 운영한다는 기무라과장의 설명이다.

副會長께서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見學을 건의하고 싶다고 하였다. 찬란한 우리 문화유산도 대규모로 발굴 복원하는 것은 후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일 것 같다.

“三定”이라는 덴뿌라(튀김)요리로 점심을 마치고 요코하마(横浜)로 이동했다. 레인보우브리지(首都高速), 페이브리지(高速灣岸線) 등 해안고가도로를 지나자 다시 海底고속도로로 이어졌다. 드라이브를 즐기는데는

아주 훌륭한 코스로 생각되었다. 요코하마(横浜)에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70층의 Landmark Tower가 있다. 각종 위락시설과 전망대 그리고 호텔 등이 들어서 있으며 주변 부속건물에는 文化갤러리가 시선을 끌었다. 전망대에 올라 차 한잔을 마시며 내려다보는 푸른 바다는 周圍環境과 調和되어 말 그대로 한폭의 그림이었다.

시내 한편에 China Town이 있었다. 도로 양쪽에 밀집된 中國人 商街는 온통 붉은색 천지였다. 이곳에선 중국인들이 상당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듯했다. 서울에도 시청 앞 부근에도 한때 중국인 상가들이 꽤 번창했었는데 오래 버티지 못하고 쇠퇴해 버리고 말았다. 어쩌면 한국인의 외국인 배척경향의 토양 위에서는 고사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저녁에는 日本電氣協會에서 베푸는 마지막 만찬이 있었다. 이번 방문기간 동안 副會長님과 나는 점심과 저녁은 늘 식사에 초대되었다. 오늘은 요시다(吉田)常務와 무라다(村田)總務部長이 나와주었다. 첫날부터 모든 편의를 너무나 성심껏 베풀어 주어서 그 고마움은 이루다 표현할 수 없었다. 이로서 3일간의 案内를 맡았던 기무라(木村)課長과 洪가이드는 이제 그 任務를 모두 마치게 되었다.

6월4일은 崔世熙 委員이 동경에 도착하여 나와 合流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電力史料를 수집할 것이다. Tokyo City 호텔로 숙소를 옮기고 오후 4시에는 崔委員과 함께 일본전기협회 요시다(吉田)常務를 방문한다. 지난 4월10일 “전기의 날” 行事時 한국을 방문했을 때 崔委員이 자료협조를 구했던 관계로 인사도 할 겸 資料도 要請할 생각에서다. 또 협회에서 발행한 內線規程 등 도서도 구입할 계획이다.

副會長께서는 6월 6일 귀국하시고 우리는 다시 체제

비를 줄이기 위해 우에노공원 부근에 있는 일본식 여관으로 숙소를 옮겼다. 긴자(銀座)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다.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우에노 공원에서 日課를 시작할 정도로 매일 새벽 걷기운동을 하였다. 여기 머무르는 동안 세 가지 많은 것을 보았다. 제일 먼저 거지들의 천국이 우에노 공원이다. 수백 명은 됴직한 그들은 개인용 텐트를 숲속에 쳐놓고 寄居하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하는지는 알 길이 없다. 벤치도 그들이 차지하고 一般市民은 앉을 곳도 없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거지들이 빗자루 하나씩은 다 갖추고 있었으며 자기 주위는 항상 깨끗이 쓸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물골을 보면 지저분하기가 이를 데 없는데도 말이다. 그들도 公衆道德 정도는 지킨다는 自負心이 있다는 것일까! 또 한 가지 많은 것은 까마귀다. 우리 나라 것의 두 배는 됴직한 까마귀들이 이곳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날아다닌다. 일본에선 까마귀를 吉鳥로 생각하기 때문에 잡지 않는단다.

많은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老人들이다. 일본은 노인들의 天國이다. 이미 高齡化社會로 진입한지 오랜 일본은 이제 젊은 사람보다 노인들의 人口比率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福祉社會일수록 老齡化는 가속되는 것 같다. 어딜 가나 팔구십 정도 되어 보이는 老人觀光團이 쉽게 눈에 띈다. 건강도 아주 좋아 보인다. 近視眼的으로 세 가지 많은 것을 들어보았으나 다른 側面에서 보면 많은 것은 또 있을 것이다.

•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에는 韓國資料 많아

6월7일은 中央日韓協會의 후지모토(藤本)副會長과 아오끼(青木)理事를 만나 電力史料에 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學習院大學으로 갔다. 이 대학은 현재의 일본천왕이 다닌 학교로서 원래 日本貴族의 子女들이 다니던 保守的 傳統을 유지해 오던 大學이나 이제 그런

전통은 사라진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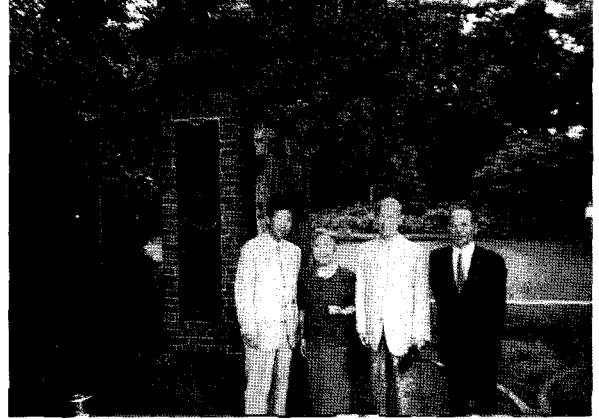
中央日韓協會가 所藏하고 있던 韓國關聯 資料는 관리 운영의 專門性을 고려하여 이곳 대학내의 東洋文化研究所에 기증했다고 한다. 관리책임자 루일라이 왕(중국인)씨로부터 자료열람허가를 받고 6개월간의 研究所出入證까지 발급 받았다. 또 전용연구실을 별도로 할애해 주어 자료 열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의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우선 資料目錄을 확인한 결과 電氣關聯資料가 상당히 많았다. 우리는 목록을 검토하고 자료를 대출받아 목차와 내용을 훑어가면서 複寫할 부분을 찾아내었다. 그리고 복사는 내가 직접하기로 했다. 複寫料가 셀프일 때는 10엔, 職員에게 의뢰하면 35엔이다. 여직원에게 복사기 사용설명을 듣고 崔委員이 찾아낸 자료를 복사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대출되는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도 여직원들은 언짢은 기색 없이 친절하게 도와주었다. 3일간을 꼬박 자료를 찾아 뒤지고 복사하는 일에 시간을 다 보내었다. 무엇인가를 찾아낸다는 기쁨과 흐뭇함도 처음 느껴보는 것 같다.

또 여기에는 電氣界 元老들의 對談資料가 녹음테이프나 마이크로필름으로 담겨져 보관되어 있었다. 시간상 그런 것까지는 다 보지 못하고 책을 複寫하는 일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이번에 가장 아쉬웠던 일은 조선총독부나 그 산하기관 및 당시 전기사업에 종사하던 원로들을 만나려고 수소문해 보았으나 대부분이 타계하거나 설령 생존해 있다 해도 고령이라서 面談이 不可能했다는 점이다. 朝鮮의 初期電力史를 최초로 체계화한 전력사의 權威者인 기시켄(岸謙)先生の 遺族이라도 만나볼 수 있을까 기대를 걸었는데 그분 子弟의 여건이 여의치 않아 만날 수 없었던 것이 무척이나 섭섭한 일이었다.

마지막날 우리는 日本國會圖書館과 간다(神田)에 있는 현책방을 돌아보기로 했다. 국회도서관에 들어서자



▲ 學習院大學 正門에서 中央日韓協會 藤本 副會長, 青木理事와 함께

우선 방대한 자료의 규모에 놀랐다. 카드書架만 해도 엄청난 분량이고 자료열람은 완전히 셀프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컴맹은 거기서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카드를 뒤지던 끝에 전력에 관한 자료 몇 개를 메모해 가지고 나오면서 다음 機會를 기억해야 했다. 일본에는 要所要所에 많은 자료가 묻혀 있으리라는 예감이 드는 것은 일본인들이 옛것의 보관과 관리에 철저함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간다(神田)의 현책방가에는 우리가 찾는 자료는 거의 없었다. 자료 찾는 일은 포기하고 금년도 新刊圖書發刊에 따라 選定된 “전기기술자핸드북”을 구입해 가지고 나왔다.

資料의 蒐集內容이나 분량에 대해서는 出張結果報告書를 별도로 작성하므로 여기서는 省略하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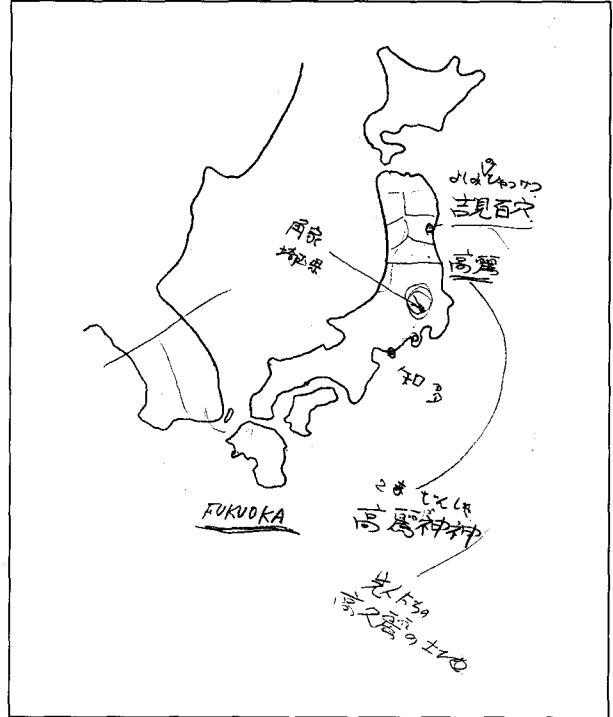
지난 3일간 副會長님과 나를 위해 수고가 너무 많았던 기무라(木村)課長에게 귀국하기 전에 소주한잔 사기로 約束한 일이 있다. 내일 귀국한다며 전화를 걸었더니 반가워 했다. 수미(角)課長도 함께 오라는 부탁과 함께 전기빌딩 1층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나는 다시 洪가이드에게 연락했다. 오후 6시, 전기빌딩 지하에 소

주 마시기 좋은 술집이 있었다. 기무라와 수미는 경쟁이라도 하듯 나에게 여러 가지 일본소주를 맛보게 했다. 이곳 소주는 어느 지방 것이냐에 따라 술의 人氣度가 매겨지는 듯했다. 또 소주병이 우리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고 디자인이 양주병처럼 다양하며 용량도 제각기 달랐다. 세 가지를 마셔보았으나 그리 독한 것 같지는 않다. 洪가이드도 오늘은 가이드가 아닌 自由人으로 돌아가 마음 놓고 마셨다.

술기가 거나하게 돌아 수미(角)과장이 호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탁자 위에 퍼놓았다. 자세히 보니 한국과 일본이 바짝 붙어 있는 地圖를 손수 그려 가지고 온 것이다. 그의 그림솜씨는 꽤찮은 편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기 家門은 東京의 북쪽에 위치한 사이다마현(埼玉縣)에 자리잡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元來는 先祖가 新羅에서 건너와 수미가(角家)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친밀감이 느껴진다고 한다. 그러면서 地圖도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은 심정으로 양국을 밀착되게 그렸으며 설명에 열을 올렸다. 기무라과장은 그러는 수미과장을 支援하고 있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지도까지 미리 준비해 가지고 나온 수미과장의 순박한 마음이 사실여부를 떠나 기분 좋게 느껴지기도 했다. 對話는 꼬리를 물었지만 자리를 옮기기로 했다. 그들이 자기네 韓國語 先生을 만나보자고 했다. 계산을 하고 나오니 한국어선생을 만나려면 아카사카(赤坂)로 가야한다며 택시를 잡았다. 도착한 곳은 "라운지 코모"라는 술집인데 韓國女性이 경영하는 곳이었다. 크지는 않지만 아담하고 깨끗하며 분위기 있는 조용한 양주집이다. 40대 초반인 미모의 한국여성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알고 보니 일본전기협회 직원들이 종종 찾아와 마시며 한국말 한두 마디씩 배우곤 한다는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라다(村田)總務部長과 오자와(大



▲ 수미(角) 과장이 그려 보여준 지도. 마치 한국과 일본이 한 나라 같다.

澤)課長이 나타났다. 우연히 온 것처럼 하지만 사전에 약속이 된 듯한 느낌이다. 사석에까지 이렇게 찾아와 주니 더욱 고마웠다. 이곳에도 가라오케 시설이 되어 있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모두 한국노래만 불렀다. 노래도 수준급이다. 그런데 나머지 한국노래를 부르기가 어쩐지 미안해서 옛날에 배웠던 희미한 일본노래를 목록에서 찾았으나 나와 있지 않았다. 그래서 옛기억을 더듬어 가사를 이어가며 육성으로 불렀는데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東京도 子正이 넘으면 지하철이 끊기므로 11시가 조금 지나자 일어나기로 했다. 그들은 나를 택시에 태워 숙소까지 바래다주고 돌아갔다.

이튿날 나는 10여일 간의 日程을 마치고 所期의 成果와 함께 歸國길에 올랐다. ㉘